"승속화합 '새종단' 가꾸기 최선"

태고종 새 총무원장 혜초 스님

수요 인터뷰

한국불교 태고종은 지난 11월28일 총무원 중앙불교회관에서 정기종회를 열고 제17대 총무원장에 혜초스님(64·영평사 주지)을 선출했다.

—먼저 총무원장 당선을 축하드립니다. 소감은.

▲우리 종단에는 종무행정 경험과 식견을 갖춘 훌륭한 스님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러모로 부족한 저를 총무원장으로 선출해 준 데 대해 모든 종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종단내 산적한 문제들을 이미 마련된 종단개혁안을 바탕으로 원만히 풀어내 전통종단으로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종도가 신뢰하는 총무원

—그동안 스님께서는 총무원 부원장으로 종단운영에 참여해 오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종단 안팎의 대소사에 대해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종단에서 가장 선행되어야 할 과제가 있다면 무엇인지요.

▲우리 종단에서 가장 시급한 것이 승속의 화합입니다. 화합이 선행되면 종단의 위상이 강화되고 종풍도 바로 서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임기동안 전 종도가 하나되는 화합종단 조성에 주력하겠습니다. 또한 총무원도 종도들이 믿고 따를 수 있도록 신뢰를 쌓아야 겠지요.

—종단개혁을 밑받침하는 개정된 종헌 종법이 지난 71회 정기중앙종회에서 인준을 받음에 따라 본격적인 시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시행방향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강화와 종풍쇄신을 위해 지난 69회 종회부터 종단개혁이라는 기치를 내걸고 1년여 동안 종단발전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개혁작업을 해 왔습니다. 이제는 예전 관념에서 과감히 벗어나 새 종단가꾸기를 위한 작업들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때입니다. 체계적인 시행계획을 수립, 철저하게 실천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년 사업계획 가운데 인천 영종도 용궁사에 종정원 설치등 10개년 성역화 사업이 종단 내외의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전통사찰인 용궁사를 태고종도들의 정신적인 귀의처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종정원·비구니 강원설치 등 잠정적으로 성역화 계획을 세워두었지만, 구체적인 10개년 계획을 수립해 명실상부한 태고종의 총본산으로서 역할을 다하게 할 생각입니다.

—최근 수계요건 강화를 비롯 선암사 불학대학 설립, 동방대 각종학교 승인요청 등 태고종이 교육부문에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승려교육문제는 태고종뿐 아니라 대부분 불교종단이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하는 부분입니다. 승려의 기본교육과정이 마련돼 있지 않다는 것은 불교의 어두운 미래를 보는 것이나 다름없습니다. 이러한 현안을 해결하기 위해 태고총림 선암사에 불학대학을 설립하고 현 동방불교대학은 교육부의 각종학교 인가를 받아 기존의 재가자 교육기관에서 승려의 기본교육을 전담하는 교육기관으로 전환할 계획입니다.

—태고종의 교세가 날로 줄어들고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또한 종단운영에 있어 재정은 매우 중요합니다. 재정확충 문제와 전통종단으로서의 태고종 위상정립은 어떻게 풀어 나가시겠습니까.

▲그 문제야말로 개혁종단이 이끌어내야 하는 가장 큰 과제중의 하나입니다. 전국 사찰의 분담금제도를 활성화시키는 한편 특별운영기금제도를 마련해 재정안정에 역점을 두고 종단을 이끌어나갈 생각입니다. 이제부터 태고종단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번 종단개혁에는 두가지의 큰 흐름이 있습니다. 하나는 교육개혁을 통해 참신하고 능력있는 수행자를 양성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종단산하 사찰에 공영화개념을 도입해 모든 사찰이 불교공익을 위해 힘을 모으는 것입니다. 이것이 원만히 이루어지면 질적 향상은 자연히 이루어지지 않겠습니까.

—조계종 개혁종단이 출범하면서 태고·조계 분규사찰문제를 풀기 위한 양종단 특위가 만들어지고 양 원장스님이 회동하기도 했습니다. 분규사찰문제는 어떻게 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선암사에 불학대학 설립

▲분규사찰 문제에 대한 태고종의 입장은 오래 전에 이미 정립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태고종단의 문제가 아니고 조계종측이 어떻게 생각하고 실천하는가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분규종식의 문제는 여기에서 실마리를 찾아야 합니다. 조계종이 어떻게 할 것인가 추이를 지켜보면서 대처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그런 점에서 비관도 낙관도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체적인 방침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총무원장을 비롯 종회의장 등 3부 수장이 갑작스럽게 바뀜으로 해서 약간의 혼란도 예상됩니다. 향후 종단인사에 대한 견해는.

▲전 총무원장스님 임기가 2년 남은 시점에 새로 총무원장이 선출돼 다소의 논란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종단 개혁이라는 대 명제 아래 총무원 집행부도 새로 태어나야 한다는 여망에 따라 인사가 이루어진만큼 여법한 종단개혁과 안정을 위해 집행부는 최대의 이해와 아량을 베풀어서 화합종단을 이끌어 내겠습니다. 새로 임명된 종회의장 사정원장과 의논하여 개혁에 어울리는 역량있고 신망받는 유능한 인재를 발탁해 집행부를 구성할 계획입니다.

—종도들에게 당부하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종단개혁은 스님들만이 이끌어내는 것은 아닙니다. 승속이 하나가 되어 같이 해야 합니다. 모든 종도들은 새로운 종단가꾸기에 동참해 전통종단으로서의 위상확립과 거듭나기에 용맹정진합시다.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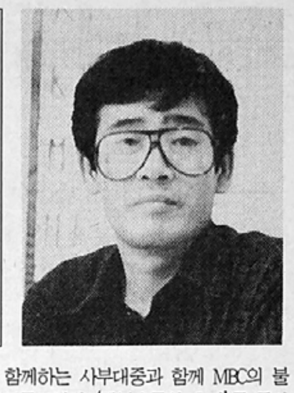
약력

- 45년 김앙택화상을 은사로 득도
- 53년 해인사 인곡화상을 계사로 구족계 수지
- 종회의원, 사회부장, 포교원장, 연수원장, 부원장 등 종단요직과 법륜사 주지등 역임
- 한일불교문화교류협의회·한국불교사상연구회 이사, 한국불교 포교사협회 회장등 역임

교육체계 확립…분담금제도 강화 운영 혁신

종정원·비구니강원 설치 용궁사 성역화 추진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 회장〉



20여년전, 그 무렵 나는 경기도 용인군에 있는 한 중학교에서 교편을 잡고 있었다. 그 해 학생들을 인솔하여 안성에 있는 칠장사로 봄소풍을 가게 되었다. 그해 내가 칠장사를 찾았을 때는 봄볕 아래 퇴락해 가는 한 고사(古寺)에 지나지 않았다.

칠장사가 오랜 세월에도 내 마음 속 깊이 자리하고 있는 것은 내게 남다른 사연이 있기 때문이다. 그것은 내가 칠장사를 통해 불교와 첫 인연을 맺고 부처님 제자가 된 데서 연유한다. 그 해 칠장사를 처음 찾았을 때 절에 객스님 한분이 와 계셨는데 난생 처음으로 불법에 눈을 뜨게 해 주셨다. 그때까지 불교에 대해 전혀 문외한이었던 나에게 들려준 몇마디 부처님 말씀은 오래도록 나를 사로잡고 놓아주지 않았다.

'색즉시공(色卽是空) 공즉시색(空卽是色)'

객승의 그 한마디는 학교로 돌아오고 난 뒤에도 내 귓가에서 맴돌았다. 그 명제는 가을까지 몇 달이나 나를 잠못 들게 하였다.

뜻을 함께하는 사부대중과 함께 MBC의 불법 선교프로그램인 '행복으로의 초대'를 중단시킨 일에서부터 '主日'이라는 종교용어의 방송광고 사용금지 처분에 이르기까지 바른 방송을 통한 호법을 위해 내딴에는 많은 시간과 노력을 투자했다. 지금도 그 일을 계속하면서 많은 방송사의 각종 프로그램을 모니터하는 한편, 3년전부터 불교관련 프로그램을 만드는 방송사 제작자들에게 용기를 주기 위해 보리방송문화상을 만들어 시상해오고 있다. 올해부터는 불교방송 프로그램도 선정하여 상을 주어 격려하고 있으며, 내년부터는 불교 텔레비전에까지 확대하여 열악한 환경에서 일하고 있는 이들을 격려하고자 한다. 또 불교방송의 시청자위원 자격으로 불자들의 목소리를 방송사측에 전하는 심부름도 하고 있다.

'下山 참회' 재가불자운동 시작

방송문화상 제정 시민모임 '두레' 이끌어

그해 10월1일 '국군의 날', 휴일이라서 하숙집 동료들과 사과밭에 놀러 가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나는 그 약속을 어기고 몰래 집을 빠져나와 칠장사로 향했다. 그런데 난생처음 부처님께 참배를 올리고 나니 도무지 돌아갈 마음이 나지 않는 것이었다. 이대로 그냥 돌아가면 다시 부처님을 뵐 수 없을 것만 같은 생각이 드는 것이었다. 그래서 그만 객방에 눌러앉고 만 것이다.

나의 출가는 그렇게 시작되었다. 그때 내 나이 스물하고 다섯, 벌써 20년 저쪽의 일이다.

그때를 생각하며 가끔씩 칠장사를 다녀온다. 그러나 내가 살았던 흔적은 어디에도 없다. 수행의 징표로 매일 한개씩 쌓던 행지탑도 사라져 보이지 않고 선방 뒤뜰에 땀흘리며 일구었던 작은 밭도 은행나무 밭도 흔적이 없다. 다만 늦가을이면 울고 싶도록 붉은 몇 그루 감나무만 빈 텃밭을 지키고 있을 뿐이다. 그러나, 칠장사를 다녀오면 한결 가뿐하다. 마치 번뇌의 비랑을 비우고 오는 기분이다.

하산(下山) 후 10여년간 교편생활을 하다가 해직이 되고나서 한동안 방송사에 몸담아 TV 드라마를 썼다. 그러나 나에게 있어서 하산은 부처님에 대한 가출(家出)이었다. 한동안 부처님 집안일에 깊이 동참치 못하다가 '보리방송모니터회'로 불교계에 시청자운동을 소개하면서 부처님집안에 대한 보은과 하산에 대한 참회로 재가불자운동을 시작하게 되었다.

외부적으로는 방송위원회를 비롯하여 방송사, 유관단체에 수시로 나가 방송을 통한 불교홍보와 호법을 위해 많은 이들을 만나고 있다. 잘하나 못하나 그래도 6년을 넘게 이 일을 해오고 있다.

방송에 관한 일말고 몇해 전부터 새로 시작해온 일이 있는데 '시민모임 두레'가 그것이다. '두레' 그늘에는 문화기행, 생태기행, 민족문화연구소, 가람문학회 등등의 계열단체가 있는데, 특히 관심을 쏟고 있는 부문은 문화유산을 답사하는 문화기행이다. 1천명의 회원을 가진 이 모임은 사찰기행 등을 통해 불교문화의 진수를 보여주고, 그 안에 깃든 부처님의 진리를 전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 지난 5월 부처님 오신날, 문경 봉암사를 찾아가서 개신교와 가톨릭 등 수십명의 타종교인들에게 부처님 앞에 108배를 시킨 일은 지금도 회원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 이 모임에서는 '탄광촌 청소년 공부방 만들어주기'를 비롯하여 사회의 어두운 곳을 위한 일도 수시로 하고 있다.

그 밖에도 크고 작은 일들을 뜻있는 이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 나는 이러한 모든 일들이 불공이며 수행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주위에서는 나를 '돈복은 없어도 사람복 많은 사람'이라고 한다. 이것은 곧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이 혼자서는 할 수 없는, 여럿이서 하는 여럿을 위한 일임을 뜻하는 말이다.

기술과 유통과정이 가격을 해결 했습니다

'95최신형 방열판 15개를 확인후 구입하십시요

BECKER·CALORIC의 장점
-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온풍팬 기능의 쾌속난방
- 자동온도 조절장치 및 과열방지 기능
- 자동 동파방지 기능
- 고품격의 디자인 및 앞선감각
- 이동이 자유로운 난방기구

주요기능
- 자동온도 감지센서 기능
- 동파 및 과열방지 기능
- 열효율을 높여주는 공기 흡입배출 일렉트릭 팬

제품사양

내용 \ 품명	BECKER 라디에타
형식승인번호	7-743
전격전압	220V/60Hz
규격	(W)82cm×(D)66cm
방열판수	15개
소비전력	1단 : 1,000W, 2단 : 2,000W, 1단+2단 : 3,000W, 2단+온풍팬 : 2,800W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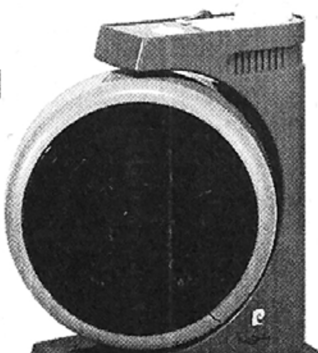
특별 보급가
수입원⇒창고⇒소비자 ₩396,000 ⇒ ₩248,000

회전식 세라믹 팬히터

Pierre Cardin

회전식 세라믹 펜 히터 장점
- 동종 최대의 강력한 파워
- 회전식 기능의 송풍난방
- 피에르 가르뎅의 디자인과 기술에 의한 고품격의 감각
- 조용하고 아늑한 실내분위기

세라믹 히팅 방식이란?
전기에 의해 간접 가열된 특수가공 세라믹 판넬 사이로 공기를 방출시키는 원리로 산소가 타지 않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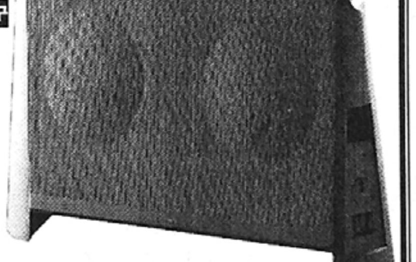


특별 보급가
₩160,000 ⇒ ₩138,000

분사식 송풍 난방

MAX

청정그린에너지의 난방기구
- 연소식 일반난방기의 문제점 완전 해결
- 분사식 기능의 송풍난방으로 아늑한 분위기 연출
- 자동온도장치 및 과열 방지기능



특별 보급가
₩380,000 ⇒ ₩278,000

신용카드 구입시 18개월 장기분할

전국취급점 모집

남미물류(주)
代:02)516-0114
소비자:02) 566-6373

■광역시
부 산:646-7905~6
광 주:361-1349
대 구:
대 전:627-9484
인 천:434-8844

■경기도
평택, 오산, 안성: (0333)655-0966
수원: (0331)32-6344
수원: (0331)216-6336
성남, 판교:
일산, 고양:
안 양:43-8949
김포, 강화:

■강원도
강 릉:
원 주:

■경상도
진 주: 43-0880
포 항: 47-8794
울 산:
마 산: 56-7685
거제, 충무:
안 동:

■충청도
천안·온양 (0417)582-4475
홍성·대천·예산: (0451)34-0121~2
서 산:665-9413

■전라도
전 주: 85-5130
이 리:
군 산:452-0386
여 수:
여 천:
광 양:762-7944
목 포: 78-6428
순 천: